

축산과학원, 중부지역 축산농가 대상, 교육 실시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원장 이상진) 낙농과에서는 중부지역소재 축산농가 중 인공수정교육을 희망하는 농가 23명을 대상으로 인공수정교육을 지난 6월 18~19, 2일간 실시했다.

소의 번식에 관련된 이론(박수봉, 백광수) 및 실기교육(박성재)을 통해 농가소의 번식률을 높이도록 교육을 실시했다. 이론교육은 번식관련 내용으로 6시간, 실습은 5시간으로 인공수정을 희망하는 농가와 소 번식을 제고를 위해 이론 및 기술습득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단시간에 기술습득이 충분하도록 1:1 교육을 하였으며, 박성재 연구사는 소의 난소 자궁 등을 초음파기기를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시키면서 기술이 습득되도록 교육을 실시했다.

매년 인공수정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는 인공수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가축분뇨자원화사업 정부지원 대폭 확대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이상수 농림수산식품부 자원순환팀장은 지난 5월 26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자연순환농업 연찬회'에서 "자연순환농업 정책은 앞으로 SOC(사회간접자본)차원에서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에 따라 내년도 사업비 단가를 대폭 상향,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내년도 공동자원화지원사업의 지원 단가를 현재 2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고 보조지원 비율도 현재 50%에서 80%로 높일 계획

이라고 밝혔다. 또 액비살포비 지원단가도 현재 ha당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시키겠다는 것.

이 과정은 "이같이 사업단가가 상향되면서 올해 사업 추진 예정 경영체들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고의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연할 경우 정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 값 '휘청' ... 암소 출하 급증

소 값이 휘청했다.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규정 고시 소식이 알려지면 암소를 중심으로 소 출하가 급증하는 등 소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 축산물공판장의 한우 지육 kg당 가격은 1만2613원으로 전순평균 1만3522원, 전년 동월 평균인 1만4452원보다 크게 떨어졌다.

600kg기준 산지 암소 가격도 419만1000원으로 전순평균 432만9000원, 전년동월 평균 479만원과 큰 차이가 났다. 쇠고기 소비 위축에 뒤이은 출하물량 증가가 주 원인이다.

경북 문경에서 한우를 키우는 양승남씨는 "비싼 송아지 사다 비싼 사료 먹여 키운 소지만 가축시장에 헐값에 내놔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며 막막한 심정을 토로했다.

정규성 축산유통연구소장은 "고시 소식이 알려지면서 암소를 중심으로 출하가 크게 늘었다"며 "거세우는 일시적으로 물량이 몰린 이후 다소 진정됐지만 농가들이 장기전망을 어둡게 봄에 따라 암소사육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영목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장은 이와 관련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체 쇠고기 소비가 위축됐을 뿐 아니라 고시 강행으로 산지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소값이 크게 떨어졌다"며 "고시를 철회하고 소 수매 등 산업기반 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시중유통을 위한 검역에 들어간 미국산 쇠고기는 대형마트보다 외식시장을 통해 소진될 전망으로 시장잠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분위기가 미국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데에는 상당한 부담이 뒤따른다"며 "당분간 취급계획이 없으며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이라고 말했다.

쇠고기 수입업체의 한 관계자도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논란이 지나치게 불거져 향후 시장성에 대해서도 회의가 든다"며 "추석이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농협, 사료가격안정 특별자금 지원기준 확대

농협의 사료가격안정특별자금 지원기준이 당초 계통사료취급량 월 500톤 이상 조합에서 월 250톤 이상 조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축산발전협의회가 지난달 24일 농협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참석 조합장들은 사료가격안정특별자금 지원기준안 개선 내용에 대한 논의를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농협 계통사료 월 취급물량 250톤 이상 전 조합에 대해 취급물량에 비례해 계획된 자금 1000억원을 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규모 취급조합인 지역단위 54개 조합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사료 가격 인상 이후 지원되는 특별자금은 농협중앙회의 지원분이 농가에 지원되며 추가부

담 여부는 조합의 자원에 맡기기로 했다.

한편 사료가격 인상을 우려하고 있는 농협 사료는 다음달 초 일반사료가격 인상시기에 축산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사료 가격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낙농진흥회 집유비 인상, 7월 1일부터 적용

32원 수준의 낙농진흥회 집유비가 내달 1일부터 소폭 인상될 예정이다. 낙농진흥회는 지난달 12일 집유비 조정 관련 회의를 열고 전북과 경기지역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집유비를 12% 내외에서 인상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름값 등 제반 비용이 크게 올라 어려움을 겪던 집유조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윤형운 낙농진흥회 팀장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집유비용 조정의 건이 정식으로 논의되기 시작해 총 5차례의 회의와 현지실사를 통해 수요자와 생산자가 합의에 이르렀다"며 "12일 현재 전북과 경기권역을 제외하고 모든 권역이 협의를 마쳐 내달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OE 위험통제국 캐나다서 광우병 발생

캐나다에서 또 광우병 감염우가 나왔다. 캐나다 식품검역청은 지난 23일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광우병(BSE)에 걸린 소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13번째다.

캐나다는 OIE로부터 작년 5월 미국과 같은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2003년 광우병 소 발견 후 뇌, 등뼈 등 위험 부위를 어떤 동물 사료에도 포함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번 광우병 발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정적 사료공급 시스템 구축 시급

국제 곡물가의 상승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만큼 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관련 제도와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허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5일 한국축산경영학회가 강원대학교에서 주최한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축산업 안정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사료가격 급등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허 연구위원은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따라 한우가격 하락 현상이 일어나고, 사료값 상승으로 축산농가가 동시다발적인 악재에 처해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연구위원은 그 방법으로 "일본과 같이 정부와 생산자, 사료업체가 공동으로 사료안정기금제도와 비축제도, 배합사료가격 안정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배합사료 원료인 옥수수과 수수 등을 비축을 하고 있다.

그는 또 "국내부존자원을 활용해 사료 곡물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두박과 땅콩박 등의 농산부산물과 제빵분 등의 식품부산물을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차상석 (주)한일사료 부사장도 "국내 부존자원의 활용과 신규원료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법규제로 식품 부산물이 산업 폐기물과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는 만큼 이를 사료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100만 ha의 논을 이모작 체제로

운영할 경우 연간 400만톤의 보리와 호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환경사 임야 역시 초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사료 작물 재배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동물용의약품 전달

한국동물약품협회가 지난 5월 29일 북한 개성시 송도리 협동농장에 항생항균제, 소독제, 구충제, 인공수정기구 등 회원사 18개 업체에서 기증한 약 2800만원 어치의 동물용의약품을 전달했다. 이번 동물용의약품 지원은 (사)통일농수산사업단(이하 사업단)에서 개최하는 제1회 개성 모내기행사와 때를 맞춰 이뤄져 더욱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지원을 받은 농장이 개성공단에서 10분거리 에 위치해있고 (사)통일농수산사업단에서 남북영농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적극지원하고 있어 이번 동물용의약품 지원으로 농장의 생산성에 큰 향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협회측에 따르면 송도리 협동농장은 개성인근 30개 협동농장 중 가장 큰 규모로 총 면적 506ha에 수도작 시범포, 양돈장, 시설채소단지, 과수단지, 인삼단지 등이 조성돼 있고, 양돈장은 연간 1000마리 규모로 남측에서 종돈, 모돈, 사료, 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수 사무총장 10일 별세

통합민주당 박홍수 사무총장이 지난 6월 10일 오후 4시20분께 5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그는 지난 5월 15일 과로로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되면서 쓰러진 뒤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참여정부 시절 농림부 장관 출신인 박 총장은 18대 총선 직후인 4월 11일 신계륜 전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사무총장에 임명돼 쇠고기협상 무효화 추진위원장과 전당대회 준비위 총괄본부장, 조직강화특위 위원장 등을 겸임하며 강행군을 해왔다.

박 총장은 고향인 경남 남해에서 마을 이장을 시작으로 지역 농민운동에 투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회장까지 지낸 '농업통'으로, 17대 때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내다 농림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우유사랑 영어로 말하기 열풍

영어를 통해 우유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우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인 2008 'ilovemilk' 영어말하기 대회가 드디어 막을 올렸다. 낙농진흥회(회장 강명규)와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지난 6월 1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제4회 ilovemilk 전국 어린이 영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ilovemilk 영어말하기 대회는 오는 7월 31일까지 원고접수를 마감하며 전국 6개 권역별로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지역 예선이 열린다. 본선대회는 오는 10월 1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대상은 1년 이상 해외 거주 경력이 없는 전국 초등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발표주제는 우유와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에 대해 개인은 4분 이내, 단체는 7분이내의 분량으로 우유(milk)란 단어를 5회 이상 사용해야 한다.

수상자에게는 대상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을 비롯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이 주어지며 대상 200만원 등 총 2천만원의 장학금도 주어진다.

이에 앞서 낙농진흥회는 오는 29일 낙농체험목장인 충남 당진의 태신목장에서 영어목장체험도 개최한다.

낙농진흥회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ilovemilk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참가신청을 받고 있으며 추첨을 통해 참가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영어체험목장에서는 원어민 강사를 초청, 목장체험 전 프로그램이 영어로 진행될 예정이다.

농협,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이달 11일까지 신청 받아

농협이 정부의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추가지원 지침에 따라 특별사료구매자금 5000억원에 대해 7월 11일까지 대출을 실시한다.

대출조건은 기존 조건을 대폭 완화해 금리를 1%로 내리고 상환기간은 축종에 따라 소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돼지와 닭, 기타 가축은 2년 분할상환으로 확대됐다.

특히 이번 지원대상에는 사슴과 말, 산양, 메추리, 토끼, 타조 등 배합사료를 구매해 급여하는 기타 가축 사육농가가 추가됐다.

대출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시·군·구청으로부터 축산업등록증 사본에 가축사육마리수, 기존 사료구매자금 지원결정·통보 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받아 사업신청서와 함께 농협중앙회나 농협 또는 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사료가격안정을 위한 무이자 자금 2000억원을 긴급 조성, 조합에 지원하는 등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다각적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 축산신문, 농수축산신문, 라이브뉴스)